

1 처음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우리 집사



전민서 청년

임마누엘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지하 1층 새가족실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석 명절 예배 안내

9.16(월) ~ 18(수) 매일아침예배는 종전대로 진행됩니다.

9.18(수) 수요예배 및 전도는 모이지 않습니다.

가정예배지는 로비 안내데스크 및 카카오채널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3 8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9.21(토) 오전 9시 성가대실

4 예수로 사는 남자들 모임

9.21(토) 오전 9시 2층 교육관

*모임 후 친교의 시간(족구)이 있습니다.

매일아침예배 오전 5:30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훈련을 합니다

묵상노트를 속회원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묵상노트를 활용해 주세요.

되도록 현장예배 참석을 권합니다

기도의 연합을 통해 개인의 삶과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9시 11시	본당
유아유치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교육관
청소년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청년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시30분	본당
수요예배	오전 10시30분	본당
금요말씀기도회	오후 8시	본당
속회예배 목~토		



섬기는 교회 | 선교사

해외 강남진 임명호선교사 잠비아
이준 위문선교사 태국
류승현 황윤주 선교사 르완다

담임목사 김영광
부목사 김경현 유한나
전도사 염민아
원로목사 임규호
원로장로 김현식 박양수
사무장로 전병희 마승초 주진범 주창호

국내 기동교회 안민혁목사
영파교회 고봉선목사
익산벧엘교회 미준철목사
극동방송
위드지저스미니스트리
행복한선교회
건국대학교병원 교회 정명희 목사
서울삼성병원 교회 김정숙 목사

임마누엘교회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경배와찬양

*찬양

나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로의부름

김영광 목사

*신앙고백

다함께

1부 차창현 권사

대표기도

2부 마승초 장로

성경 사도행전 17:13-34(새번역)

사회자

찬양대 하나님의 진리등대 임마누엘찬양대

설교 '새로운 것'에 중독된 도시 김영광목사

*봉헌과결단

이 땅에 오직 주밖에

다함께

*축도

김영광 목사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일 대표 기도

9/22 1부 채금회 권사
2부 주진범 장로

9/29 1부 추영숙 권사
2부 주창호 장로

매일아침예배

월~금 오전 5:30

느헤미야

김영광 목사

김경현 목사

유한나 목사

교회, 나의 기도원

화 ~ 토 오전 9시~오후 6시

성전기도시간 본당에서 언제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말씀으로 살아나는 가정

주일 저녁에는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예배합니다.

온 세대 주일사도행전 말씀으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 1)찬양으로 예배 시작(QR코드)
- 2)성령의 조명을 위한 시작기도
- 3)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말씀읽기
- 4)인도자의 말씀 선포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씩 나누고 기도
- 5)마침기도

찬양_예수 예수(슬픈마음 있는자)



말씀_사도행전 17:16-34

베로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아지자 바울에게 적개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울을 빠르게 아덴(아테네)로 파신 시켰습니다.

아테네에 머물던 바울은 이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었습니다.(16절) 그래서 회당과 거리를 오가며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변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과 논쟁을 즐기는 도시로, 헬라의 철학자들이 모여있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던 철학자들은 흥미를 느끼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바울을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지도 못하는 신'까지 섬기며 늘 새로운 것을 찾는 아테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의 예수님까지 세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아테네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인의 말을 인용(28절)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철학 사조에 대해 들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은 복음의 내용을 듣고 받아들이기는커녕 비웃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레오바고를 떠났습니다.

가정예배

그의 설교가, 전도가 실패한것까요? 겉으로보기엔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34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디오누시오는 아테네 지역의 교회 대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디오누시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은 것 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린도전서 3:6-7)

함께 나누어 보세요.

- 1) 복음을 전할 때,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 복음을 전해야 할 전도대상자가 있다면 나누어봅시다.

온라인 현금 안내

농협 355-0074-8968-63

(예금주 : 임마누엘교회)

*송금시 '이름+현금종류' 기재

예시) 십 일 조-김바울십 / 감사현금-김바울감

주일현금-김바울주 / 선교현금-김바울선

일천번제-김바울일 / 건축현금-김바울건